

해남군, 쌀 수출 산업화 '본격'...간척지에 쌀 전문생산단지 조성

해남군-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 등 5개 기관·기업 업무협약 "지속적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 수출 확대로 돌파구 마련"

해남군이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남군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환경친환경농조합 등 6개 기관·생산자 단체·기업은 12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벼텍스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박태선 기반조성이사,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 옥천농협 윤지영 조합장, 땅

끝환경친환경농조합법인 윤영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간척지에 전문 농업단지를 조성, 장립종 쌀 RPC 설립 등을 통해 수출용 장립종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서는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품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남군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이용과 기반조성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원활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용 쌀 전문단지는 내년 관내 간척지 일대에 60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단계별 재

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20만톤 가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밥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밥쌀용 벼인 단립종 대신 전 세계 쌀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장립종을 재배하는 수출용 전문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장립종 쌀은 쌀국수와 파스타, 향미 등으로 주로 쓰이는 인디카 품종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인기증가로 매년 시장 규모가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개발되어 벼 품종육종 및 재배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농업 노하우를 살려 고급 장립종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완도군,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본격화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4개 면 대상 사업 추진

완도군은 지난 12일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완도군의 4개 면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사업 대상지 확정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해 LPG 저장 탱크와 공급관, 가스보일러,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사업은 올해 고금면(418세대)부터 시작하여 군외면(229세대), 약산면(146세대), 신지면(280세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고금면은 내년 준공, 군외·약산·신지면은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취사·난방용 연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관망을 통한 가스 공급으로 기존 대비 30~40%의 연료비 절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업무 협약식에서 "사업 추진 시 저장탱크 부지 선정 및 도로 굴착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대상지에서 누락된 마을은 추후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장흥군, 민원응대 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민원담당 공무원 고충 해소

장흥군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센터'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폭언, 협박, 폭행 등에 노출돼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

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민원응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장흥군은 심리상담센터를 분기별로 진행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피로감을 덜고 업무대처 능력을 높여겠다"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민원행정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진도 울금 등 특산자원 활용...전후방 연관산업 지원사업 추진

진도군이 2024년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사업인 '진도 울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청구를 운영했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사업 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재)전남테크노파크와 (재)전남 바이오진흥원을 사업단으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진도 울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 지원사업'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7억 3,9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한다.



울금특구산업과 구기자, 대과, 흑미, 속진도 특산자원의 전후방 연관 지원사업을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3개 분야, 13개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관내 참여업체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은 ▲혁신화와 성장촉진사업(정보

통신기술(ICT)연계 융복합 기술 애로해결지원 사업, 지식재산 경영진단 컨설팅 등 3개 프로그램) ▲사업화지원(기업 맞춤형 전문가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고급화지원 등 10개 프로그램) 등 총 76건의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수) 18:00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smtech.go.kr>)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과 (재)전남테크노파크(☎ 070-4421-6843, 070-4285-4599), (재)전남바이오진흥원(☎ 061-339-1250, 061-339-1252)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진도군의 우수한 특산자원을 원재료가 아닌 가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